

KIA 4강의 길, 2% 부족하다



추, 일주일만에 '아치'

에인절스전 시즌 12호... 팀은 4연패

미국 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2)가 시즌 12호 홈런을 쏘아 올렸다.

추신수는 17일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의 홈경기에 1번 지명타자로 출전. 0-5로 뒤지는 4회말 선두타자로 나와 비거리 134m의 솔로 홈런을 쳐냈다.

추신수는 상대 투수 맷 슈마커의 시속 133.6km(시속 83마일) 체인지업을 받아쳐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아치를 그려냈다. 지난 11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시즌 11호 홈런포를 기록한 지 6경기 만이다.

추신수는 전날에는 5타수 2안타로 멀티 히트(한 경기 안타 2개 이상)를 기록하는 등 타격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날 4타수 1안타(1홈런) 1타점을 기록한 추신수의 시즌 타율과 출루율은 각각 0.243, 0.341로 전날과 변함 없었다. 텍사스는 이날 4-5로 패하며 4연패에 빠졌다. /연합뉴스



이용대-유연성 세계 1위

배드민턴 남자복식, 인도네시아 제쳐

한국 배드민턴 남자복식의 간판 이용대(삼성전기·사진 왼쪽)-유연성(국군체육부대)이 세계 정상에 우뚝 섰다.

이용대-유연성은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이 최근 발표한 세계랭킹에서 8만4418점으로 헝드라 세티아완-모하마드 아흐산(인도네시아·7만6960점)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지난해 10월 덴마크오픈 슈퍼시리즈 프리미어부터 국가대표 복식조로 출전한 이들은 첫 경기를 치른 지 약 10개월 만에 세계랭킹 1위를 달성했다.

특히 이용대는 정재성, 고성현에 이어 유연성까지도 남자복식 세계 정상에 올라 명성을 재확인했다. 2009년 1월 정재성과 처음으로 세계랭킹 1위에 오른 이용대는 2012 런던 올림픽 이후 정재성이 태극마크를 반납하고서 고성현과 짝을 이뤘던 약 7개월 만인 지난해 5월 세계 정상에 복귀한 바 있다.

배드민턴 세계랭킹은 최근 1년(52주)간 출전한 대회 중 가장 좋은 성적을 낸 10개 대회의 결과를 점수로 매겨 결정된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노리는 이용대-유연성은 오는 25일부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세계개인선수권대회에도 출전해 우승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한박자 늦은 투수 교체
선발 라인업 등 엇박자
휴식기 갖고도 2연패
벤치 세밀한 전략 절실



변수 많은 8월, 과감하고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4연승으로 띄어놓은 4강 분위기가 2연패에 차갑게 식었다. 100%의 싸움을 하지 못하고 내준 패배라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결과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14·15일 휴식기 일정을 보냈다. 휴식기를 전후로 해서 총력전을 펼치며 4강 싸움의 고삐를 당길 수 있는 기회였지만 '휴식기 효과'는 없었다. 휴식기 전이었던 13일 경기에서 NC에 3-4 역전패를 당했고, 휴식을 취하고 치른 16일 경기에서는 넥센에 6-9로 패했다. 가용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부족했던 총력전이었다.

13일 KIA는 '어센시오의 딜레마'에 빠지면서 타격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토마스가 선발로 출격하면서 두 장의 외국인 선수 카드 중 하나를 쓰게 된 KIA는 어센시오를 염두에 두고 필을 라인업에서 제외했다. 필이 이날 NC의 선발이었던 이재학에게 8타수 1안타로 부진했던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필의 제외가 아쉽게 됐다. 토마스가 탈삼진행진을 하면서 초반 흐름은 KIA가 주도했다. 1회 김주찬의 볼넷에 이어 이대형의 3루타가 나오면서 선취점도 가져왔다. 김민우와 김주찬의 2루타 등을 더해 5회까지 3-1로 리드를 잡았지만 중심타선이 허무하게 돌아서면서 뒷심 싸움에서 NC에 밀렸다. 이범호-나지완-안지홍으로 꾸려진 클린업트리오는 이날 15타수 2안타 1볼넷으로 부진했다. 4번 나지완은 주루사까지 당하면서 신중감과 교체되기도 했다.

8회에는 필을 대신해 1루수로 선발 출전한 김민우의 결정적인 실책이 나오면서 3-4 역전을 허용했다. 결국 9회에 마무리 어센시오대신 뒤늦게 필이 경기에 투입됐지만 사후약방문이 됐다. 16일 경기에서는 마운드 싸움이 아쉬웠다. 선발로 출격한 김진우가 1회 2사 위기는 넘겼지만 2회 1사에서 볼넷 2개와 3안타로 대거 4실점을 하며 넥센의 기를 살려줬다. 4회에도 볼넷이 빌미가 돼 실점을 한 김진우는 5회에는 선두타자 이택근을 몸에 맞는 볼로 내보내며 다시 불안한 출발을 했다. 결국 2사 1·2루에서 강정호에게 3점포를 맞으면서 점수는 8-2까지 벌어졌다.

휴식기를 보내면서 최영필·김태영·어센시오의 필승조가 충분히 휴식을 취했고, 선발 자원이었던 송은범에 이어 임준섭까지 볼넷 대가를 하고 있었던 만큼 늦어진 마운드 교체가 뼈아프게 남았다.

9회 3점을 뽑아내는 등 뒤늦게 추격이 이뤄졌지만 초반에 김진우가 내준 8점의 벽은 높았다. 선발의 조기 붕괴 속에 집중력 잃은 타선도 16안타로 6점을 만드는데 그치며 패를 불렀다.

물량 공세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두 경기였지만 2패만 쌓았다.

2연전 일정에 예측불허의 날씨까지 변수 많은 8월이다. 선수들의 집중력 있는 플레이, 벤치의 과감한 승부수와 세밀한 전략이 절실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선동열 감독

덕아웃 특·독·독

▲“넥센하고 하니까 그래.”

17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예정됐던 KIA와 넥센의 경기가 우천 순연되면서, 18일 챔피언스필드에는 월요일 경기가 열린다. 우천취소 결정에 한대화 수석코치가 “넥센하고 하니까 그래”고 웃었다. 올 시즌 프로야구에는 아시안게임 일정상 월요일 경기가 도입됐다. 주말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되면 월요일에 경기가 진행되도록 한 것이다. 아직 KIA는 두산과 함께 월요일 경기를 치른 적이 없다. 지난 4일 잡혀있던 삼성과의 월요일 경기도 태풍의 영향으로 취소되면서 KIA에게는 ‘야구 없는 월요일’이었다. 반면 넥센은 3주 연속 월요일 경기가 잡히면서 씩씩한 일정을 이어오고 있다. 월요일은 쉬는 날인 KIA와 월요일 경기를 몰고 다니는 넥센, 일단 월요일 경기가 예정된 18일 광주에는 비예보가 잡혀있다.

한대화, 우천 취소에 “넥센하고 해서 그래”

(3연속 월요일 경기)

▲“다들 어디 갔어요?”

지난 16일 넥센 덕아웃을 찾은 KIA 전력분석팀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등록선수 명단을 건네주기 위해 걸음을 했지만 원정 덕아웃이 텅 비어있었던 것이다. 오후 4시30분 넘은 시간, 경기 시작까지 불과 1시간 30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였다. 훈련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시간인데 텅 빈 덕아웃. “다들 어디 갔어요?”라면서 놀랄 만 했다. 3주 연속 월요일 경기를 치르는데 사직-잠실-광주의 일정이 이어지면서 고된 행보를 한 넥센은 이날 훈련 대신 휴식을 택했다. 느긋하게 경기장에 출근해 간단히 몸을 푸는 정도로 훈련을 끝낸 넥센. 강팀은 역시 강팀이었다. 집중력 있는 타격을 선보인 넥센은 휴식기를 보내며 체력을 비축한 KIA를 상대로 9-6, 5연승을 찍었다.

▲“도둑놈 심보들이야.”

선동열 감독이 “제구력은 선천성인가?”는 질문을 받았다. “강속구는 확실히 선천적이다. 제구력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던 선 감독. 팀 상황에 대해 얘기하던 선 감독이 “도둑놈 심보들이야”라면서 쓴 소리를 했다. “요즘 선수들은 연습 안 하면서 많은 것을 바란다. 3~4배 공을 던지면서 노력을 해야 한다. 공 던지는 것을 좋아하는 선수들이 확실히 실력이 된다”고 언급했다. 쓴소리는 했지만 칭찬도 잊지 않았다. 선 감독은 “김병현은 정말 열심히 한다. 최영필도 그렇고 두 베데랑 선수가 솔선수범하면서 어린 투수들이 알아서 보고 배우는 것 같다. 주전들이 솔선수범 하는 풍토가 되어야 팀이 잘 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